

[나의 초보 양육기 2]

나를 위한 하나님의 첫 양육

엄혜원 성도 / 2002 / 페이지 수: 2

처음 동반자를 맞던 날, 힘들었던 기억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

동반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다. 첫 날 만나서 해야 할 이야기들을 생각해 두고, 향기 좋은 차와 멜론을 사와 색깔 예쁘게 과일도 놓았다. 오기로 한 시간이 되어 차물도 미리 올려놓고 준비한 자료를 미리 읽어보면서 어떤 자매님이 오실까 상상하고 있었다. 만나기로 한 시간이 훌쩍 넘고 거의 두 시간이 지났을 즈음 연락이 왔다. 교통사고가 나서 늦었다며 오늘 약속을 취소하자고 했다.

‘너도 까다롭잖니’

아마도 접촉사고로 실갱이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다시 연락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바쁘다는 자매와 힘들게 약속한 것이기도 하고, 어쨌든 사고로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서 늦더라도 와서 차나 들고 사건이 잘 수습되도록 기도 하자고 권유했다.

첫 인상에 자매님은 커리어우먼에게서 보이는 당당함과 고집스러움이, 쉽지 않겠다 싶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차를 드시겠어요?’라고 물으니 물을 달란다. 그 때는 초여름이어서 찬물을 드리니 따듯한 물을 달란다.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우유를 달라고 했다. ‘맘소사’ 마침 남은 우유가 있어 드리니 또 데워 달라고 했다.

이런 저런 것을 물었다. 자매님은 일요일마다 몇 명의 청년과 불광동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예배도 보고 오후에 온누리교회로 온단다. 자기는 자기가 가르치는 비행 소년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방언을 받게 한다는 거였다.

‘하나님, 제게 까다로운 것이 뭔가 보여주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게 이렇게 벅찬 자매님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해요? 전 신앙이 초보인데, 자매님은 7단도 넘겠네요. 공통점이라면 결혼 안한 하이 미스라는 것과 같은 대학을 나온 것뿐 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냥 방긋이 웃으시며 ‘한 가지 더 있잖아, 까다로운 것’ 하신다.

그 다음 주일에 일대일 안내데스크에 가서 똑같이 푸념하니 ‘그냥 하세요’ 하신다. 그 길로 서점에 가서 성경사전을 샀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자매이니 내가 아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자매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 예습을 하고 컴퓨터로 교안도 미리 준비했다. 공부가 끝나면 내가 시간 중에 빼놓았을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니 집에 가서 한번씩 읽어보라고 카피한 것을 주었다.

주님 안에 가장 좋은 가족, 동반자

이렇게 시작한 일대일공부는 나에게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일대일 양육이 제가 양육자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한 프로그램이었군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제게 배우게 하시고, 또 나쁜 모습이 있으면 제게 그 모습이 있는지 보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일대일 졸업식 때 그 자매가 간증을 하게 되었다. 그 자매는 처음부터 끝까지 양육자가 자기에게 얼마나 잘 해주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 후 어느 세례식 날 그 자매님의 아버님께서 간증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다. 난 사실 그 아버님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 자매님은 내 기도에 감사한다고 했다.

‘하나님 제게 일대일을 통해 주신 기쁨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다 세워 주시는군요.’ 나의 부족한 신앙 때문에 일대일 양육하는 것을 주저했던 믿음 없음이 부끄러웠다.

엣그제는 내 생일이었다. 내 생일을 차려주고 음식을 준비해서 온 사람들도 모두 동반자들이었다. 이런 좋은 교제는 주님 안에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 출처 : 큐티와 일대일**